

#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고심’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 장애인 시설서 정담회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31일 장안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에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이용이 제한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부화되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관리 시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8명과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수원시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바다의별·수봉재활원 등 수원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학부모 16여 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대안 및 개선방안 마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31일 장안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에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련, 이용자 중심의 자립지원 정책 마련, 장애인 특성·정도에 따른 다각적인 정책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부족에 따른 시립장애인거주시설 건립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영모 위원장은 “장애인 탈시설화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만족 수준에 비례해 실행해야 함이 타당”이라며 “수원시도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정책을 최우선으로 운영

중이며, 최종장애인·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 효성 있는 탈시설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열 기자

## 현장방문 통한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인천도시역사관 등 찾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체육·복지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현안사항 청취로 열린 의회 구현에 나섰다.

지난 31일부터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현장방문은 그동안 코로나로 휴관 등 운영이 축소돼 어려움이 많았던 분야별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현안사항 파악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송도에 위치한 인천도시역사관, 트라이보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체육·복지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현안사항 청취로 열린 의회 구현에 나섰다.

울 등의 기관 현안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능과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장애인체육회도 방문해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 예정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사항

점검했다. 아울러 2월 출범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인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쉼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등도 찾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는지 살폈다.

안종삼 기자

## 경기도 소방행정 현안·애로사항 살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도 소방재난본부 방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는 지난 31일 화성소방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현안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화성 지역 재난 대응

및 구조 등 현안을 점검하고 소방행정과 재난대응시스템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먼저 화성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서 현황 및 신속청사진행사항 등을 보고받고 소방차량 및 구조장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응급처치 훈련 시연을 참관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로 이동해 6층 브

리룸에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재난종합지휘센터 상황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5층 지휘센터에 방문해 실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소방행정과 재난대응 과정을 이해하고 대원들의 고충을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항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안전행정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창 기자

경기도의원 한마디

## “버스노동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을”

이흥근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흥근(민주당, 화성·사진) 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 도내 버스업계 현황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버스노동자 인근지역 대비 노동조건의 격차, 도내 운전인력 유출, 기종점 화장실 부재 및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민영제 노선의 버스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경기도 준공영제 대비 81~90%, 서울버스 대비 70~77%, 인천버스 대비 72~79%정도 수준”이라며 “민영제 노선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많은 운전 인력이 인근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



며, 도내 1일 2교대제를 위한 절대적 운전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행,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의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노선에 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필요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로 인한 인력 유출은 도민 교통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장시간운전·저임금구조가 개선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국민의힘, 고양12·사진) 위원장이 지난 31일 고양시 송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내 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시 송포5동 자유로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 탄원서 및 서명지 제출 등 정담회를 가졌다.

고양시 송포5동에 위치한 도촌마을은 50가구 남짓이 모여 취락지구를 이루는 동네이며, 최근 자유로 차량 통행량 증가로 소음과 비산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창문을 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정담회를 통해 도촌 주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



힘 고양시정 김현아 위원장, 신현철 고양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은채 송포동장 및 윤현철 송포5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자유로 노후 방음벽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김완규 의원 1호 사업으로 방음벽 개선공사를 결정했다.

이날 윤현철 통장으로부터 자유로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 탄원서 및 서명지를 전달받은 김 의원은 “도촌마을 50세대 가구원은 소수이며 정치적 약자이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해도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가 하루빨리 진행돼 도촌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의회

의회 단신

## 이천시의회 의정활동 역량 본다

23일간 정례회 개최

이천시의회가 의정활동 역량의 가늠자가 돼 올 첫 번째 정례회를 개최했다. 1~23일 2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초선의원들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계획돼 있다. 또한 8대 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상정돼 있어 의결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삼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의회운영의 청사진이 될 중요한 정례회”라고 밝히며 이번 정례회가 갖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만큼 이번 정례회에서의 활약이 향후 의정활동 향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후 일정으로는 2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동인의 12건, 의견청취의건 1건이 심의된다.

이후 5~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228억17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집행부에서는 이날 1차 본회의의 제안명령을 통해 이번 추경이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바 있다.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의결과 2021년



이천시의회가 의정활동 역량의 가늠자가 돼 올 첫 번째 정례회를 개최했다.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의결하게 된다.

이로써 이천시의회 8대 의회는 결산은 물론 12월에 있을 본예산의 예비심사라는 시험 무대를 마치게 되는 셈이다.

14~21일 그간 교육을 통해 익힌 감사기반을 심본 활용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서류 및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듣고 법령과 조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됐는지 핵심 포인트를 꼭 지켜내 예산쓰임을 바로잡고 시책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규)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23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하게 된다.

이규상 기자

## 하남시의회 추경안 ‘현미경 심사’

제314회 임시회 개최

하남시의회가 1일부터 7일까지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632억원(일반회계 9339억8900만원·특별회계 292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4억원(10.11%)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민선 8기 새로운 시장 목표 실현을 위한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용역 4억원 △2022년 하남형 스피론(시범) 사업 4억원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3억원 △투자유치단 운영 2억3100만원 등이 신규 사업이 편성된 가운데 의회는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는 2일 하남시로부터 제3회 추

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고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이날 도시발전 분야 적극행정 실천으로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헌노력과 조용준 팀장과 교통정책과 전천후 도시계획과 정해진, 건축과 강석우,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박주연 주무관을 ‘2022년 3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강성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혜택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가용재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오늘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도시발전 분야 적극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구학모 기자

## 노동상담소 확대 복지 시각지대 해소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민주당, 평택3·사진, 김선영(민주당, 비례), 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상담소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서현옥·김선영·이용호 의원, 도 노동권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 남부에 도 지원 평택 노동상담소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경기도 전역으로 노동상담소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는 대기업·중소기업, 산업단지, 항만 등으로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불구하고 노동자의 법률상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가 없다”며 “경제 중심축이 남부로 접



차 이동함에 따라 평택에 남부 거점 노동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 남부 평택 노동상담소 설치를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으로 노동상담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자들의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도비 지원으로 운영 중인 북부 노동상담소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평택에도 노동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창 기자